

# 뜻심있는 불굴의 동물...성실함·번영의 상징 '하얀 소'

辛丑年-소 이야기

가축의 의미 넘는 친근한 벗  
순종적이며 비상금고 역할도  
소와 관련된 민속놀이 많아  
우직하지만 고집도 센 동물

2021년은 신축년(辛丑年)이다. 육십간지 중 38번째 해로, '하얀 소의 해'이다.

십이지의 소는 방향은 북북동이며 시간상 새벽 1시에서 3시에 해당한다. 달로는 음력 12월을 지키는 방향신이다. 소는 밭 틈이 두 개로 갈라져 음을 상징하는데 우리 조상들은 씨앗이 움터 봄을 기다리는 모양을 닮았다고 생각했다.

소는 농경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동물이다. 예로부터 단순한 가축의 의미를 넘어 소중한 노동력을 담당하는 식구로 간주되었다. 무거운 짐을 나르는 운송의 역할 외에도 급전이 필요할 때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비상금고' 역할까지 담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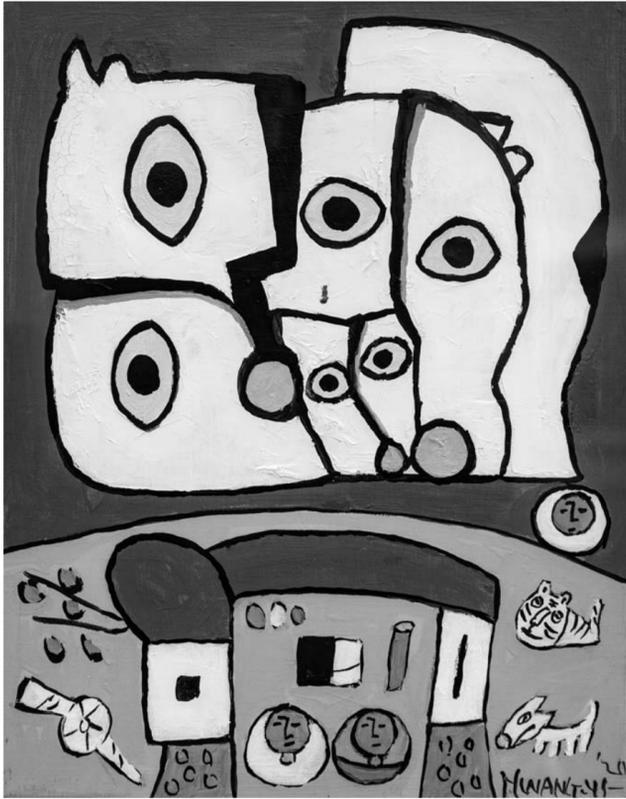
소의 특성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근면과 우직함, 유순함이다. 농사에 없어서는 안 될 조력자로서의 충분한 자질을 갖췄다는 의미다. 성품이 사납지 않고 순종적이어서 예로부터 12가지 덕이 있다고 했다.

또한 소를 친숙하고 우직한 벗으로도 여겼다. 한집에 사는 식구처럼 편하게 대했던 것은 그 때문이다. 참을성도 많아 농사와 관련된 일을 묵묵히 해내기도 해서 여러모로 유익했다.

소의 힘, 다시 말해 축력이 소용되는 분야는 다양했다. 땅을 파고 뒤집는 데 쓰이는 쟁기, 흙을 고루는 데 쓰는 거레, 등에 걸쳐 거름 등을 싣는 옹구 등은 모두 소를 이용한 농기구였다. 연자방아를 돌리는 데도 소를 이용했다. 벼, 보리와 같은 곡식을 찧기 위해 소에 매어 방아를 돌렸다. 많은 짐을 실어 나를 때도 수레를 소에 연결해 이용하기도 했다.

이처럼 소는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농사의 주역이었다. 은근과 끈기, 힘을 세지만 사납지 않은 품성 등이 그 같은 농경의 쓰임에 맞아떨어졌음을 보여준다.

우리 조상들의 소에 대한 배려도 각별했다. "소가 말이 없어도 열두 가지 덕이 있다"고 본 것은 그 같은 연유다. 날씨가 추워지면 짚을 깔아주거나, 봄이 오면 양간을 깨끗이 치웠다. 솔로 등허리를 잘 빗겨 신전대사를 도왔으며 먼길을 갈 때는 짚으로 짠 신을 신겨 발굽이 닿는 것을 방지하기도 했다.



그림=황영성 ▲ 조선대 미술대 학장 ▲광주시립미술관장 ▲광주비엔날레 조직위원 ▲국립아시아문화의전당 회고전 등 다수 전시 ▲황조근정훈장·금호예술상 등 수상

우리의 민속에는 유독 소와 관련한 놀이나 풍속이 많다. 정월 대보름과 추석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소싸움 놀이는 소의 끈기와 힘을 겨루어 승자를 가렸다. 풍년을 염원하는 한바탕축제의 장이었던 쉼이 다. 투우 관련 민속에 소놀이극이 있는데, 풍농과 집안의 번영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행해졌다.

대보름 전날 소에게 먹이를 주며 풍년을 점치는 풍속도 있다. 오곡밥을 쇠죽에 섞어 먹일 때 소가 곡식을 먼저 먹으면 쌀 풍년을 예상했다. 반면 콩을 먼저 먹으면 밭과 떡을 차려 외양간 앞에 두고 소가 사고 없이 일 잘하기를 기원했다.

소와 관련된 유물은 고구려 고분 벽화에 다양하게 등장한다. 여물을 먹거나 달구지를 끌거나 농사신으로 활용된 장면이 나온다. 이 같은 장면은 삼국시대 이미 농업에 소를 꾸리는 우경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청동기 12지상 중에서도 소를 발견할 수 있다. 사람의 몸에 동물의 머리를 하고 두 손을 모으고 있는 모습은 섬세한 제작 기법을 반영한다.

토우 가운데도 소가 남아 있다. 길게 뻗은 뿔, 짙은 발, 돌진하듯 숙인 머리는 강인하고 저돌적인 모습을 상징한다.

도가적인 이상세계를 동경했던 조선시대 선비들은 그림 속에 소를 표현했다. 김홍도의 경작도에는 황소와 농부, 개, 정답을 나누는 노인들의 정겨운 모습이 잘 표현돼 있다. 그림 외에도 시문, 금속공예품인 제기 등에도 곧잘 소의 형상이 등장할 만큼 소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동물이었다.

소를 말할 때 자주 인용되는 속담 가운데 '천천히 걸어도 황소걸음'이 있다. 꾸준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고집이 센 황소고집은 누구의 말에도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래서 '소귀에 경읽기'라는 말이 생겨났다. 사교적이지만 고독한 특징을 지녔다는 것이다.

이밖에 소는 둔한 것 같으면서도 한번 마음 먹은 일은 꼭 해내는 특징이 있는데 '쇠뿔도 단김에 빼다'라는 말이 이에서 연유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강자에게 강해 결코 무릎을 꿇지 않지만 약자에게는 인정을 보이기도 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知天命의 辛丑年 운세



2021, 신축년은 제세경륜의 신성한 '흰 소'가 천하 만물을 사령하는 태세의 운기이니, 작렬하는 태양 별과 시의적절한 우수풍조의 천혜에 힘입어, 온 세상을 무궁무진한 행복의 길조로 이끌게 되리라.

음양오행의 원리에 비추어 보건대, 소는 고래로부터 근면과 여유 그리고 평화의 표상이 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생명력의 원천이요, 순리로서 정의를 지켜내는 지인지자의 은혜로운 동물임에 틀림없으니, 다사다난했던 지난날의 고통과 난국을 명쾌하게 잠재우며, 생기복덕을 개창해 나아가는 천기를 발휘함으로써, 고진감래의 만망이 현실화되는 환호성으로 넘쳐나리라.

子 36년생 동안에 오르니 여기저기에 탐스러운 과일이 즐렁줄렁 열려 있고, 강가로 내려가니 푸른 물속에 싱싱한 물고기들이 퍼덕이고 있으니 의식이 풍족한 낙원이로세! 48, 72년생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하더라도 조심으로 돌아가 성심을 다 한다면, 의외의 수확을 얻게 되리라. 60, 84, 96년생 임기응변을 잘 발휘한다면, 우연한 재안을 약진의 기반으로 활용하게 될 것이다.

午 42, 66년생 재물과 이로움이 함께 하니, 얼굴에 기쁨이 가득 차리라. 54, 78년생 인연이 다 한 것은 미련 없이 버린다면, 반드시 호기가 도래 할 것이니, 희망찬 미래를 향해 포부를 펼쳐 보자. 90, 02년생 고정 관념을 버리고 활동 영역을 넓혀 나가면, 복락의 평원에 이르게 되리라.

丑 37, 49년생 만사가 인사에서 비롯되는 법이니 평소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둔 사이라면, 절실한 때에 큰 도움을 받게 될 수 있을 것이다. 61, 85년생 봄비가 대지를 촉촉하게 적시더니 곡식과 열매를 알차게 하는 햇볕이 내리쬐어 풍요를 예견하고 있구나! 73, 97년생 소가 낱말을 일구고 있는 곡세이니 주어진 일에 묵묵히 임한다면, 복록과 경사가 무궁무진 하리라.

未 43, 91년생 이른 새벽부터 길조가 지저귀니,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기거나 먼 길로부터 오는 귀인을 맞이 하리라. 55, 67년생 야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심고 있는 도량이니 농부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 하는 것이 만사 해결의 실마리가 되리라. 79, 03년생 평상시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창의적인 해안이나 아이디어를 가볍게 넘기지 않고 잘 활용한다면, 어느새 성공의 지름길 앞에 서 있을 것이다.

寅 38, 50, 98년생 농가에는 곡식으로 가득차고, 상가에는 돈이 넘쳐나니 세상만사가 남부러울 것이 없겠구나! 62, 74년생 따스한 햇살과 부드러운 훈풍이 천지만물을 약동케 할 것이니, 천혜를 입어 순조로움을 더하리라. 86년생 밭갈이를 가던 사람이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불빛을 보게 되니, 근심 걱정없이 생활함에 있어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申 32, 44, 92년생 주변 사람들과 격의 없는 소통과 교류하며 지낸다면, 평범한 삶 속에서 작은 인연이 자아 성취의 실마리가 되어 줄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56, 80년생 가뭄 끝에 단비가 내리는 격이라 할 수 있으니, 가장 절실했던 문제를 해결하게 되거나 꼭 필요했던 것을 얻게 되는 쾌거가 있으리라. 68년생 이상과 현실 간에 조화를 이루어 적절한 타협해 나간다면, 균형 잡힌 인생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卯 39, 51년생 우연히 예상 밖의 기회가 주어져서 길사로 연결되니, 평범한 생활에 변화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게 된다. 63, 75년생 일상의 진행 과정에서 자신의 방법과 다 소 다르더라도 이해하고 수용해 나아가면, 결과적으로 성공의 길에 이르게 될 것이니 포용심으로 대하라. 87, 99년생 양의 무리가 드넓은 초원에 드는 격이니, 온 천지에 식욕이 넘쳐나리라.

酉 33, 57년생 타인에게는 증오프로써 대하고, 자신에게는 부단한 항심으로써 목표를 향한 노력을 시종일관 계속 한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두게 되리라. 45, 69년생 확실한 절제와 원만한 처세가 선행 된다면,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무난히 넘길 것이다. 81, 93년생 처음에는 고달픈지 몰라도 점점 적응이 되고 탄력이 붙으면서 급기야 그 능숙함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천행의 길로 인도하리라.

辰 40, 00년생 천지의 기운이 화합하여 매사가 순조롭고, 마음이 흡족할 것이니 모두가 선영의 음덕에서 비롯되는 복임을 알라. 52, 88년생 험지에 갇혔던 범이 활로를 찾게 되니, 세상천지 그 어디로 향하든지 승리와 성공 그리고 이득이 필연적으로 따를 것이니라. 64, 76년생 언 땅에 햇살이 비치니, 단단한 대지를 뚫고 솟아나는 새싹처럼 생명력의 경이로움이 겁탈을 금하지 못할 것이다.

戌 34, 46년생 매사에 임할 때 삼사일행 하는 습관을 생활화 한다면, 자신의 희망 사항을 취함은 이미 따 놓은 당상이라 할 것이다. 58, 70년생 다른 사람의 말이나 새로운 것에 대한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굳건히 지켜낼 수만 있다면, 그 결실은 의외로 알차리라. 82, 94년생 여명을 뚫고 밝아오는 붉은 해가 비칠 것이니, 묵묵히 가던 길 속에서 안정적인 교두보를 확보하게 될 것이니라.

巳 41년생 백수의 왕인 사자가 동물들 앞에서 모습을 드러낸 형국이니, 자기 자리를 지켜 나가면, 영광과 발전이 자연히 따를 수밖에 없는 판세이니라. 53, 65, 77년생 순발력과 결단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해이니 만큼 사세 판단에 있어서 기민하게 대처해 나가면, 풍요로운 결과물을 확보하게 된다. 89, 01년생 지난날의 인연이 복록을 가져다 줄 수 있으니, 작은 만남이라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좋으리라.

亥 35년생 깊어가는 가을날, 창공을 나는 한 마리의 새에 비유할 수 있으니, 자신의 의지를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절대적 행운이 따르리라. 47, 95년생 일거수일투족에 성심을 다하고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처음에 기대 했던 바보다 훨씬 많은 노획물을 차지하게 되리라. 59, 71, 83년생 현재 주어진 여건이 시련이 아니니 기회이니 하는 것은 마음에 달려 있는 법이니, 현명한 지혜가 일관되게 요구되는 시점이라 할 것이다.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광주·전남 같이 하실분 모십니다. 062)531-3530, H .010-9229-3530

**콘도 회원권 최저매각**  
양도자 「자금사정」으로 급매각합니다

■ 콘도회원권 매각내용 (단위:만원)

콘도명	사용 체인	면적	최종 분양가	매각 금액	콘도명	사용 체인	면적	최종 분양가	매각 금액	
대명리조트	설악, 홍천스키장, 양평, 삼척, 양양, 천안, 고양, 단양, 제주, 경주, 청송, 거제, 변산, 여수, 진도	패밀리형 방1개	2,530	1,780	리솜리조트	제천 포레스트 덕산 스피러스 안면도 아일랜드 제주 퍼스픽	실버(24)방1	2,850	1,680	
		스위트형 방2개	3,600	2,680			골드(28)방2	3,210	1,980	
	로얄(34)방3	4,890	3,480	켄싱턴리조트	설악밸리, 설악비치, 가평, 포천스키장, 충주돈산, 수안보, 제주한림, 제주서귀포, 경주, 남원, 하동, 해운대, 도고	패밀리B(21)방1	1,980	980		
디럭스형 기명 (방2개)	2,480	1,680	스위트A(26)방2			2,120	1,280			
디럭스형 무기명 (방2개)	3,110	1,880	스위트B(31)방2			2,600	1,380			
								로얄(35)방3	3,200	2,200

20년 전통 콘도전문업체 동양회원권거래소 전화 (053)951-3080 팩스 (053)944-3080